

보이는 라디오 'The Sound of May'

광주고려인마을이 운영하는 고려FM라디오가 2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홀에서 드라마 콘서트 '더 사운드 오브 메이(The Sound of May)'를 진행한다.

5·18기념재단과 나눔문화네트워크(대표 윤경미)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을 빌려 낭독극, 영상, 노래가 버무려진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80년 당시 광주에 있었던 허철선 선교사, 시민군 기획실장 김영철 열사, 김요한씨, 류동운 열사, 윤정자씨, 김향숙씨의 사연을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재보완해 재구성해 진행된다.

광주기독병원에서 일하며 5·18 부상자 사진을 촬영해 해외로 전파했던 허철선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와 간호사로 함께 근무했던 안성례 전 오월여머니집 관장의 입을 빌려 무대에 올린다. 또 고문 후유증으로 1996년 사망한 김영철 열사의 삶을 탄 내팔 김연우씨가 풀어내고, 동부 경찰서에서 총탄에 맞아 척추장애를 안고 살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김요한씨의 사연을 지인 정진삼씨가 증언하며 80년 당시 도청 앞에서 사망한 류동운 열사의 발자취를 교회 후배 배창희씨가 설명한다.

이외에도 80년 당시 국민장례위원회, 취사조로 활동했던 윤정자씨와 5·18 투사회보를 배포했던 고등학생 시민군 김향숙씨도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극중에는 '에텔바이스', '가시리', 정태춘의 '5·18' 등 열사들이 생전 즐겨 들던 노래를 메이중창단의 라이브 공연으로 선보인다. 윤정자씨가 신청한



24일 진행되는 '더 사운드 오브 메이' 낭독극 리허설 모습.

광주고려인마을 고려FM라디오 진행,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80년 광주 재구성... 낭독극·영상·노래 '드라마 콘서트' 전석 무료

정태춘의 '5·18', 김향숙씨의 사연이 담긴 '늬운 군인의 노래' 등의 신청곡도 함께 무대를 채운다. 메이중창단은 조정희 교수 등 광주에서 활동하는 중견 성악가 4명과 약단 3명으로 구성돼 이번 공연을 위해 모인 음악단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색채의 아름다운 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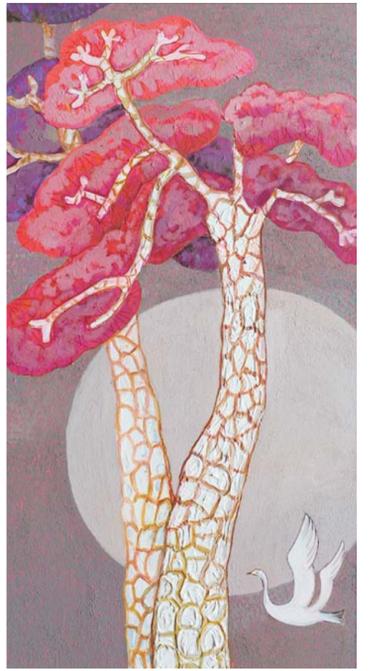
소암미술관, '광주미술작가회' 전

'화려한 색채의 향연.' 광주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이 광주미술작가회(회장 정미희)를 초청해 기획전을 열고 있다. 오는 6월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space through'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한국화·서양화 전공 작가 20여명으로 지난 2016년 출범한 '광주미술작가회'는 매년 정기전과 특별전, 타 지역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 18명이 색채의 율동과 아름다움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강수의 '고향길', 서현호의 '백구와 춤', 박경희의 '춤추는 토끼', 이인호의 'happiness', 장복수의 '남도의 봄', 정성복의 '봄날에...'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KBC방송국 옆 주택을 개조한 소암미술관은 아담한 공간으로, 이번 전시를 집안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듯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주로 내걸렸다. 문의 062-671-771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미희 'pine tree'

'여명:희망의 빛' 전

시립미술관·장애인미술협, 31일까지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회장 이진행)와 공동으로 '여명:희망의 빛'전을 24일부터 31일까지 시립미술관 1층 아트라운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회원 작가 26명이 참여해 한국화·서양화·서예·금속공예·육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술에 재능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와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갖고 작가로서의 창작기반을 넓혀나가기 위해 지난 92년 5월 창립된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매년 정기전, 단체초대전, 기획 전시 1-2회 등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또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및 창작동호회도 운영 중이다. 이번 전시에는 고경주·고오주·김봉진·김선환·



안용옥 작

김종훈·문경양·박동신·박양수·박영실·박인희·박진·소성화 작가가 등이 참여했다.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이진행회장은 "장애인 작가들이 예술적 재능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기까지 각고의 의지와 남다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인 작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4시 아트라운지에서 열리며 푸른 날타 및 가곡 공연 등 예술행사도 진행된다. 문의 062-613-7123. /김미은 기자 mekim@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6월2일까지 2차공모... 규모·장르 확대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윤희)은 전남의 지역여건, 문화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2019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를 6월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문화예술단체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획과 운영을 보장하고 규모, 장르, 대상 확대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진행한다.

공모 분야의 제한 없이 다양한 예술 장르와 대중적인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규모는 단체별 3000만원 내외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 소재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남도내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육성, 문화예술해외교류, 공연예술작품제작, 공간연계형창작, 남도문예르네상스기획, 청년예술가활동지원 등 7개 지원사업분야 310개 문화예술단체(개인)를 선정·지원중이다. 문의 061-280-5822-5825. /김미은 기자 mekim@

정성훈 '고스트' 광주창작회곡대상



제1회 광주창작회곡공모전 대상에 정성훈(사진)의 '고스트'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제5회 광주 시민연극제를 앞두고 광주 역사와 문화자원, 인물을 주제로 한 연극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서구(정장 서대석)의 지원을 받아 개최했다. 우수상에는 이강홍의 '양동시장 왕씨'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대현 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 회장은 "대상인 정성훈의 '고스트'는 사건의 연극적인 배치와 무대조형화 그리고 인물간의 갈등이 간결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대사의 묘미 그리고 무대적 상황에서의 전환과정이 깔끔하게 이루어진 상태다. 단지, 미래를 이끄는 극의 시점이 추가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한편, 대상 수상한 광주 정성훈씨(46)는 5·18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주시민이 겪었던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 작품을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조선대 부중 교사로 근무 중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정주의 이강홍씨(58)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에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작품을 썼다고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트 퍼즐 in 사직 선비놀이'

공연창작소 아라리연, 내일부터 둘째·넷째 토요일 사직공원 일대



지난해 사직공원에서 펼쳐진 '아트 퍼즐 in 사직' 국악콘서트 모습.

공연창작소 아라리연이 오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일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후 8시 사직공원 일대에서 '아트 퍼즐 in 사직 선비놀이'를 진행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1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사직공원 내 '흔적', 전망타워, 팔각정, '빈집' 등 각 공간의 의미와 역사성을 알리는 행사로 기획됐다.

오는 25일은 극단 '좋은친구들'과 함께 설치미술공간 '흔적'에서 무성영화와 번사극을 상영하며 막을 연다.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에 번사가 스

크린 옆에서 목소리 연기와 해설을 곁들인다.

이어 6월에는 극단 '초인'과 협업으로 전망타워에서 '낭독이 흐르는 한밤의 공원'을 주제로 안톤체후의 '곰' 낭독극을 선보인다. 6월 22일은 야경을 배경으로 프로젝트그룹 '온비'의 국악콘서트가 진행되며, 7월 13일엔 팔각정 앞에서 '추억과 그리움'을 주제로 어쿠스틱 밴드 '베이스튜디오'가 콘서트를 연다.

매회 나눠주는 스티커를 지도에 붙여 완성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10-8208-052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재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6 미국 리스케이거스 CES INNOVATION AWARDS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